

예배 전에

추석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앞서가신 분이 남겨놓은 신앙적 유산과 교훈을 기억하고,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며, 내세의 소망을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이드영상이 필요하신 가정은 QR코드를 통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pusanskc.com>



예배순서

예배의 부름 인도자

찬 송 301장

기 도 말은이

성경봉독 골로새서 2:6-7

말 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기 도 인도자

찬 송 559장

묵상기도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예배의 부름〉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와 축복으로 우리의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흠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 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곡이 무르익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우리 가정을 택하여 주시고 선조들과 부모님들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대대로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오신 선조들과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모든 자녀들도 흔들림 없이 신앙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영육 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서로 우애하며 부모님께 효를 다함으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는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존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골로새서 2:6-7

6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 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함께 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있으면 절로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넘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감사함이 꼭 오늘이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의 고백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슬플 때도, 언제라도 있어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한가위에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의 고백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가 믿음 위에 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위기, 기후위기, 경제위기 등 오늘 우리의 삶에는 감사보다는 걱정이 넘치는 상황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러한 위기가 없는 때가 없었습니다. 실상 예수가 없는 인생은 늘 위험과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찬양하게 하시고, 새로운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소망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 위에서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이 모든 일에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내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세상 많은 이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고 힘을 갖기 위해 애씁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실재 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획은 실패하고, 능력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고독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길로 행하던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결국에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중추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모든 성광의 권속과 그 식구들 모두에게, 이 넘치는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으로, 가족과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며 더욱 풍성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후 기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기억하며 천국에 이르도록 믿음의 길을 잘 달리게 하옵소서. 베푸신 축복에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하기

다함께 잠시 묵상하면서 앞서가신 어르신들께서 남겨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찬
성광교회



pusanskc.com
49024 부산시 영도구 청학서로 42
T. 051-416-3043 / F. 051.416.3041
담임목사 이정환